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 영 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특수교육연구부 전임연구원

도 명 애

계명문화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교수

《 요 약 》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은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가정 내 고립 및 의존 현상을 줄이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업체 내 직무적응능력을 가정이나 기타 교육시설에서 개발해 나가는 데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졸업한 이후 비고용의 상태로 가정 내에서만 머물고 있는 세 명의 발달장애성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단일대상연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험 설계는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목표 행동(종속변인)인 직무적응능력은 선정된 사업체(식당)의 맥락에 따라 식당직무기술로 조작적 정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식당) 내에서 반찬 세팅과 홀서빙의 두 가지 하위기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이러한 목표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수월하게 그 수행 절차 및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과제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10가지의 하위 단계를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인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은 비디오 모델링과 행동시연의 두 가지 교수기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두 가지 교수기술은 구분된 체제로써가 아니라 상호 통합된 패키지의 차원에서 협력적인 체제로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세 명의 발달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을 통해 식당직무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습득된 결과는 최종적인 중재 효과와 유사한 결과로 유지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업체 참조에 따른 직업훈련이 기능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향후 사업체 기반에 따른 직업훈련과 상호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 비고용 발달장애인, 직무적응능력

* 제1저자, 교신저자(helperman20@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장애인의 삶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취업 및 고용에 따른 경제적 생산 활동의 보장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지만, 그에 앞서 규칙적인 성인자립생활의 일과와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는 데에 더욱 큰 가치를 둔다(조인수, 2010; Walker & Rogan, 2007). 발달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립생활 영역(예, 주거, 사회, 직업, 여가 등)을 놓고 봤을 때, 직업생활 영역은 발달장애인이 하루 일과 속에서 다른 자립생활 영역을 보다 가치롭게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맥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이은정, 2012; Miller et al., 2007). 단적인 예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업체에서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주거환경에서 사업체로의 출근 준비를 위해 규칙적인 자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박영근 외, 2013),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 및 직장 동료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이윤우, 2013). 또한, 사업체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나 사업체 휴가에 따른 친목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함으로써, 여가활동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반도 얻게 된다(임혜경 외, 2014a). 이에 재활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있는 적용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은 학령기나 성인기의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 생애주기별 지원체제로써 평생학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김용욱 외, 2011). 이에 따라, 현재 고용이 되었거나 직업적 장애의 선별 등에 의해 향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현재 비고용의 상태로 가정이나 시설에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역시 직업훈련을 활발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직업훈련은 발달장애인의 연속적인 성인생활 주기 속에서 실시되므로, 현행의 보호고용 등과 같이 단순 직무기능의 반복이나 물품 생산에만 목적을 둔 지원체제 역시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김진호, 2003; Rogan et al., 2002; Sitlington et al., 2010). 즉,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을 개별적인 직무흥미와 강점, 학습스타일 등에 따라 경험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업체의 직무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직무일과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이윤우, 한경근, 2014; Cronin et al., 2007; Wehman et al., 2006). 다시 말해, 발달장애인이 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강점과 학습스타일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수 절차의 직업훈련을 통해 사업체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김영준, 강경숙, 2013; 송소현 외, 2011; 오길승, 2009). 나아가, 이런 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취업 및 고용의 절차와 계획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감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신진숙, 2010; 임혜경 외, 2014b).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개별적인 성인생활 관리 가운데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령기의 특수교육 관점과 연계 구도를 이를 필요가 있다(김경열, 2012; 김남진, 박재국, 2007). 이는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에 대한 성인기 학습을 개별적인 학습스타일로 수월히 적응하는데 있어 이전의 학령기에 대한 선행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은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교수전략과 기술을 성인기의 직업훈련에서 역시 활발히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역시 해석될 수 있다(강병호, 2004; Sheets & Gold, 2003; Wehman & Targett, 2004).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동안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시, 전환교육의 맥락에 따라 크게 지역사회참조교수와 지역사회중심교수와 같은 두 가지의 교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체의 직무 일과와 분위기 등을 직업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탐색·실습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참조교수는 자폐성 장애학생의 사업체 진출이 어려운 여건을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보완하는 데에 이점을 가지면서, 대개 시청각 교육(예, 비디오 모델링, 스마트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Bouck, 2009). 비록, 지역사회참조교수는 자폐성 장애학생이 직접 사업체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직무기능의 수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에 한계가 따를 수 있으나, 자폐성 장애학생이 교육실 내에서 교사의 반응촉진과 함께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에 따른 행동시연을 이어나갈 경우 그 한계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김영준, 2013; Dunn et al., 2003).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참조교수는 자폐성 장애학생이 사업체 환경에 활발히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직무 학습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높이면서 차츰 사업체의 견학과 실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써 주된 이점이 있다(김형일, 2010). 그리고 이런 이점은 발달장애학생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인생활계획의 한 가지로써 직업군 탐색과 관련 직무적응능력 개발 등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역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신현희 외, 2014). 더구나, 사업체에 진출하지 못해 가정이나 시설에 고립되어 있는 비고용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의 직업훈련 장면과 연계하여 하루 일과를 가치롭게 보내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직업훈련에 따른 직업생활의 성취도를 부담 없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Hanley-Maxwell & Collet-Klingenberg, 2004). 이상의 고찰은 작은 범주의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비고용 발달장애인이거나 직장생활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의 대상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직무배치 및 직업현장교육을 보장받는데 기초적 가치를 가진다(박희찬, 2006; Rogan et al., 2002). 따라서 사업

체의 장면을 소재로 한 지역사회참조교수가 고용의 범주로 진입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교수의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직업훈련을 통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 능력의 향상을 촉진한 사례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연구동향의 경우, 이런 사례연구의 차원보다는 성인의 범주에 속한 발달장애인이 취업 및 고용 이후 고용주와 직장 동료와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적응기술(예, 자기관리, 사회적 대인관계, 신체적 기능 등)을 알아보거나,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교육적 관점에서 사례연구로 실시한 몇몇 연구들은 이미 취업 및 고용이 되어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사업체에 완전히 진출해야만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중재전략에 초점을 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수미, 2012; 이승아, 1998). 결과적으로, 이런 연구동향은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동안 직업훈련을 비롯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반에 걸쳐 경험해 온 교수전략과 기술을 성인기 직업훈련에서 연계·활용하여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취업 및 고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성적으로 제고토록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동향에 반해,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볼 경우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재 절차로써 행동시연, 비디오나 웹기반 등의 시청각 교육을 포함함으로써(이숙향 외, 2012; Kohler, 1994), 비고용 발달장애인 역시 직업훈련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후속적으로, 다양한 배경변인(예, 고용/비고용, 전일제/시간제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됨으로써, 직무적응기술 등의 직업생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수전략 및 기술에 대한 증거기반의 실체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직무적응능력은 발달장애인이 식당의 반찬을 세팅하여 해당 테이블에 서빙을 하는 기술이며, 그 기술은 식당직무기술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식당직무기술은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가정 내의 고립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장면을 거듭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직무기술에 비해 직무흥미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하위기술의 범위(예, 조리기술, 서빙기술, 음식세팅기술, 청소기술, 주문기술 등)가 다양함으로써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사업체 진출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학습 소재를 습득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훈련프로그램은 일선 재활복지현장에서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준비 및 적응능력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식당직무기술 습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이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식당직무기술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이란 발달장애인이 실제 사업체(식당)에 진출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 사업체(식당)의 장면을 참조하여 직무기술의 수행을 다양한 형태로 시연하도록 촉진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에 교수기술로써 포함된 비디오 모델링은 사업체(식당)의 외·내부 환경, 사업체(식당) 내에서 연구자가 직무기술을 수행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행동시연은 발달장애인이 비디오 모델링 자료와 연계하여 사업체(식당) 내에서 직무기술을 수행할 시 경험하게 되는 환경 자원들(예, 직무 수행 도구, 환경 시설 등)을 간략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거나 가정 내에 평상시 준비되어 있는 도구 재료들(예, 행주, 쟁반, 냉장고 등)을 통해 직무기술을 가상적인 역할놀이로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은 발달장애인이 실제 사업체에 진출하여 직무기술을 습득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구별되며, 비고용의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업체의 직무 수행을 부담 없이 모방학습을 하는데 큰 가치를 가진다. 종합컨대, 본 연구의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은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가정 내 고립 및 의존 현상을 줄이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업체 내 직무적응능력을 가정이나 기타 교육시설에서 개발하여 실제 사업체로의 전이 효과를 높이는 데에 의미를 둔 교육방법으로써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직무적응능력

본 연구의 직무적응능력은 선정된 사업체(식당)의 맥락에 맞춰 식당직무기술로 구성되었다. 이런 식당직무기술은 하위적으로 반찬 세팅과 홀 서빙의 두 가지 기술로 분류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이 닭 요리를 메뉴로 하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나갈 반찬을 세팅하여 손님이 앉은 해당 테이블로 서빙을 하는 전문기술로써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식당직무기술은 사업체(식당) 내에서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직무적응능력이란 발달장애인이 고용주가 사업체의 생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전문기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런 의미를 연구의 주된 가치로 강조하기 위해 식당직무기술을 포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무적응능력을 연구 주체의 종속변인(목표행동) 용어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특수학교 졸업 이후 현재 비고용의 상태로 가정 내에서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인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시, 연구자에게 발달장애 학생의 직업전환교육과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 특수교사들의 협력이 수반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부모, 발달장애인과 상호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에서 얻은 정보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선정한 이후 3.5주(일주일 당 2회기, 1회기 당 40~50분 내외, 총 7회기) 동안 발달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참관하여 수집되었으며, 연구자는 참관 시 발달장애인들의 가정 내 자립생활 정도와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자는 참관 시 발달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교수기술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교수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계획된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교수기술의 분석방법은 직업 훈련에서 증거기반의 실제로 구축된 교수기술들(예, 반응촉진, 시각적 단서, 역할놀이, 비디오 모델링, 자기점검표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시적인 학습 상황과 함께 각 교수기술들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고 발달장애인들과의 면접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사정으로 실시되었다(Bouck, 2009; Miller et al., 2007).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비디오 모델링 등의 시청각 교육과 촉각적인 행동시연이 제공될 때 학습 흥미와 주의집중, 인지 효과를 보이는 공통적 특성을 보였으며, 그 밖의 교수기술에 대해서는 선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이런 분석 결과는 연구 대상의 선정 시 협력을 제공한 특수교사들이 부분적으로 제공해 준 발달장애인들의 학령기 IEP 자료의 기록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비디오 모델링과 행동시연에 대한 적용 맥락과 절차를 반영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구분	대상 A	대상 B	대상 C
성별(나이)	남(21세)	남(23세)	남(21세)
장애 유형 (1차 장애+2차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뇌성마비)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지적장애)
학력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전공과 중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가족 구성원	부모님, 본인, 여동생	부모님, 본인	부모님, 형, 본인
주거생활 실태	컴퓨터 게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채우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음.	거실 내의 소파에 앉아 TV 시청과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성향 많음.	어머니에게 간식(특히, 라면, 떡볶이, 식빵)을 해달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의존 성향을 강하게 보임.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의 선행 경험 여부	학령기에서 직업훈련 시 사업체 견학 및 교실 내 비디오 모델링 활용 경험 있음.	학령기에서 직업훈련 시 사업체 견학 및 교실 내 비디오 모델링 활용 경험 있음.	학령기에서 직업훈련 시 사업체 견학 및 교실 내 비디오 모델링 활용 경험 있음.
선호 교수기술	비디오 모델링, 행동시연	비디오 모델링, 행동시연	비디오 모델링, 행동시연
식당직무기술의 선행 경험 여부 및 흥미 정도	식당직무기술에 대한 선행경험이 없으며, 평소 어머니와 함께 식당(특히, 분식집)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함. 식당 내 직원의 행동모방을 자주 보임. 특히, “○번 테이블에 ○○ 음식 갖다 주세요” 라는 말을 하며, 식당 내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인사하는 행동도 보이곤 함.	식당직무기술에 대한 선행경험이 없으며, 평소 가정 내에서 요리사의 행동(예, 파 썰기, 찌개 끓이기 등)을 시연하는 것에 대해 선호도가 높으며, 방송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찌개 끓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부정확하게 반향어로 표현하곤 함. 실제로 조리 행동을 수행하지는 못함.	식당직무기술에 대한 선행경험이 없으며, 식당에서 직업생활을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보임 (*이 요구는 학령기의 진로 상담 시 IEP에서 관찰된 내용임). 단, 식당과 관련된 흥미나 관심 행동을 따로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와 함께 식당을 특별히 이용하는 경험은 많지 않음.
행동문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말을 잘 수용해 주지 않는 타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음.	상황에 관계없는 반향어를 종종 보이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요구를 위해 고집 부리는 행동도 나타남.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행동을 보이며, 식탐이 많아 어머니에게 음식을 소재로 고집 부리는 경우가 많음.

<표 1>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계속)

구분	대상 A	대상 B	대상 C
의사소통 능력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발음 정확도가 다소 부족함.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거나 수용하지 못함.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발음 정확도가 다소 부족함.
대·소근육 운동 발달 능력	기본적인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세한 소근육 동작을 지켜위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기본적인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손가락을 활발히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음(예, 젓가락질 어려움).	기본적인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밀한 손동작의 작업을 빨리 수행하려는 분산행동이 자주 나타남.
수행 중인 프로그램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복지관(언어치료)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표 1>과 같이 식당직무기술과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에 대한 선행경험이 없었기에, 본 연구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적절하였다.

2.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실험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학습 환경’ 이고 둘째는 ‘평가 환경’ 이다. 각 환경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가정

본 연구는 개발된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을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학습하기 위한 실험 환경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활용하였다. 즉, 가정 내의 공부방이나 거실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사업체의 장면을 비디오 장치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결과이다.

이런 가정 내의 공부방이나 거실에는 비디오 장치와 원형 테이블(또는 책상), 각종 필기도구 등이 준비되어 있어, 별다른 채구조화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수업 시 연구자와 발달장애인만 가정 내의 공부방이나 거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방해요소를 줄여 나갔다.

2) 평가 환경: 사업체(식당)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직업훈련을 제공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그

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으로써 사업체(식당)를 활용하였다. 이 사업체(식당)는 발달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인접한 지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체(식당)는 닭 요리 전문점이며, 발달장애인들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식당직무기술과 관련해 사업체(식당) 내의 조리실과 홀 전체를 활용하였다.

사업체(식당) 내의 조리실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손님에게 나갈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는 반찬대와 반찬대의 바로 밑에 설치된 받침대에서 직무기술을 수행한다. 받침대에는 반찬 그릇, 쟁반, 행주, 집게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이 역시 발달장애인들은 직무기술을 수행하면서 활용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테이블에 부착된 번호(1~12번)에 따라 세팅한 반찬을 해당 번호의 테이블로 서빙을 수행하면서, 홀 내부의 전체를 이동한다. 테이블의 번호는 좌측의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매겨져 있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 원리에 따라 테이블을 구분해야 한다. 테이블 번호의 여부는 주문 직원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접 구두로 알려준다.

3. 종속변인: 직무적응능력

본 연구에서 직무적응능력으로 고려된 목표행동은 식당직무기술로써, ‘반찬 세팅’과 ‘홀 서빙’의 두 가지 하위기술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의 하위기술은 순차적인 연합행동으로 수행되며, 발달장애인들이 종속변인의 수행 맥락과 절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과제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종속변인의 구체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종속변인의 구체적인 정의

영역	직무적응능력	사업체에서 생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요구하는 전문기술을 말하며, 실제 취업 및 고용의 수준에서 고려되는 전문기술에 해당함.
하위 영역	식당직무기술 (반찬 세팅 + 홀 서빙)	닭 요리를 메뉴로 하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나갈 반찬을 세팅하여 손님이 앉은 해당 테이블로 서빙을 하는 전문기술을 말하며, 실제로 식당 직원이 수행하는 내용 및 수준과 동일함.
과제 분석		① 주문 직원에게 테이블 번호와 손님 인원이 기록된 메모지 건네받기; ② 받침대에 있는 반찬 그릇(일반 그릇, 물김치 그릇 구분)을 반찬대 위에 올려놓기; ③ 반찬대의 각 반찬통의 뚜껑 열기; ④ 각 반찬통에 있는 집게로 그릇에 반찬 담아 반찬대의 상단에 올려놓기; ⑤ 받침대에 쟁반(대형 크기) 세팅해 놓기; ⑥ 반찬대의 상단에 올려진 반찬 그릇을 쟁반 위에 올려놓기; ⑦ 조리실에서 나와 쟁반을 들고 해당 테이블로 이동하기; ⑧ 손님에게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⑨ 쟁반을 테이블의 초입 부분에 내려놓은 뒤, 테이블 중앙 부분에 각 반찬 그릇을 놓기; ⑩ 손님에게 “반찬이 더 필요하시면 벨을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 [단계 ①번에 대한 해석 : 손님 인원 수 4인 기준 → 동일한 반찬 2개씩 상보기]

<표 2>의 과제분석은 연구자와 선정된 사업체의 담당 직원이 협력하여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기초 정보(<표 1>)와 함께 특수교육전문가 1인과 선정된 사업체(식당)의 고용주에게 그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4. 독립변인: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의 적용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의 적용 절차 및 방법

단계별 절차	구체적인 방법	적용 시간
1. 비디오 모델링 (I) ↓ 사업체(식당) 내 전반적인 환경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의 환경에 대해 친밀감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체(식당)를 둘러싼 외부 환경 및 내부 환경 전반에 대해 참조하도록 촉진한다. [① 비디오 장면 시청(한 가지 환경 소재마다 순차적 시청, '정지/재생' 반복) → ② 환경 소재별(식당 간판, 식당 주차장, 식당 내 화장실, 식당 내부 구조 등) 이야기 나누기 → ③ 비디오 장면의 연속 시청(환경 소재별 통합)] 	5분
2. 비디오 모델링 (II) ↓ 사업체(식당) 내 조리실 및 테이블 위치한 홀 환경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식당) 내에서 실제로 직무기술(반찬 세팅, 홀 서빙)을 수행할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조하도록 촉진한다. 환경 이미지 뿐 아니라, 그 환경 안에 포함된 직무도구 등 역시 참조토록 촉진한다. [① 비디오 장면 시청(한 가지 소재(예, 조리실 내 반찬대, 받침대 위의 쟁반 등)마다 순차적 시청, '정지/재생' 반복) → ② 소재별 이야기 나누기 → ③ 비디오 장면의 연속 시청(소재별 통합)] 	5분
3. 행동시연 (I) ↓ 그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의 2번('비디오 모델링(II)) 절차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촉각적 행동시연의 차원으로 비디오 장면에서 시청한 소재들(예, 조리실 내 반찬대 등)을 그림(picture)으로 그리도록 촉진한다. [※준비물: A4 용지, 사인펜; ※참고사항 :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릴 시 해당 소재가 포함된 비디오의 장면을 정지하여 참조토록 하며, 연구자의 반응촉진 역시 제공해 준다.] 	5분
4. 비디오 모델링 (III) ↓ 사업체(식당) 내 식당조리기술 수행 타인 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식당)에서 담당 직원들이 실제로 반찬 세팅과 홀 서빙을 수행하는 장면을 모방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과제 분석의 내용에 토대하여 비디오를 시청토록 촉진한다. [① 비디오 장면 시청(과제분석의 각 단계마다 순차적 시청, '정지/재생' 반복) → ② 이야기 나누기(과제분석의 각 단계별 수행 내용 및 방법마다 연구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적으로 촉진하는 형태) → ③ 비디오 장면의 연속 시청(과제분석의 각 단계 통합)] 	15분

단계별 절차	구체적인 방법	적용 시간
5. 행동시연 (II) ↓ 가상적 역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4번(비디오 모델링 (III)) 절차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들이 가정 내에 있는 몇 가지 도구재료(예, 행주, 그릇, 집게, 냉장고, 쟁반 등)를 통해 가상적으로 역할놀이를 수행토록 촉진한다. [※반찬세팅 : 테이블 위에서 해당 도구재료와 함께 사업체(식당)의 장면에 비추어 과제를 수행, 연구자의 반응촉진 및 비디오 모델링 시청(과제분석의 단계 수별 '정지/재생' 반복) 수반] [※홀 서빙 : 사업체(식당)의 테이블 번호 지정 원리에 따라 가정 내 (연구자가 몇몇 공간별 번호 지정)에서 이동 연습, 연구자(손님)·발달장애인(직원)]의 역할로 구두 의사소통 연습] 	10분
6. 마무리(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들에게 해당 중재 회기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노력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반응촉진 제공. 	5분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비디오 모델링' 과 '행동시연' 의 두 가지 교수기술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가운데 구성되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교수기술을 <표 3>과 같이 단계별 절차로 분류·적용한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식당)의 환경에 실제로 진출하지 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이 <표 3>의 각 단계별 절차에서 나타내는 주의집중에 따라 휴식시간(약 10분 정도)을 삽입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 적용 시, 연구자가 직접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협력자 1인(C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이 동행하여 연구자의 교수를 보조하였다.

5. 실험 설계 및 조건

본 연구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였다. 이 실험 설계를 통해,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기초선 자료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부담을 줄이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소현 외, 2000). 또한, 이 실험 설계의 조건은 기초선, 중재, 유지로 구성되었다.

1) 기초선

기초선 단계는 발달장애인들의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연구자의 도움이나 촉진의 제공 없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발달장애인과 2.5m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장면을 관찰만 하였다. 단, 연구자는 기초선 단계에 앞서 3회기에 걸쳐 발달장애인들이 목표행동의 수행 절차 및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디오 모델링 시청에 의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다.

2) 중재

본 연구에서 중재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사업체(식당) 내에서는 중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달장애인들의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측정만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이 사업체(식당)의 직무 수행 환경을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사업체(식당)의 경우 평가 환경으로써 의미를 두었다. 발달장애인들의 중재 시작 회기에 대한 조절 원리는 발달장애인 A의 기초선이 안정되어 중재를 시작하였고, 발달장애인 A의 중재 결과가 안정된 경향으로 나타났을 때 발달장애인 B의 중재를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인 C 역시 동일한 원리로 중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일정은 사업체(식당)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목표행동 수행을 평가한 이후, 가정 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3) 유지

유지 단계는 중재가 종료된 3주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기초선의 단계와 같이 연구자의 도움이나 촉진 없이 이루어졌다. 총 3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6. 자료 측정

본 연구에서 자료 측정은 종속변인(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의 각 단계를 정반응과 오반응 차원에서 조작적 정의를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발달장애인들이 ‘연구자의 도움이나 촉진이 없는 상황에서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 하였을 시에는 ‘정반응’으로 정의하였고, ‘연구자의 도움이나 촉진이 제공되거나 올바르게 못한 결과로 과제를 수행’ 하였을 시에는 ‘오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과제분석의 각 단계를 5초(s) 이내에 반응을 시작해야만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사업체(식당) 방문 이후 즉각적으로 1회기에 한해 자료 측정이 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들이 실험 회기별로 종속변인(목표행동)을 수행한 결과를 계산하는 공식은 [(정반응으로 수행한 과제분석의 단계 수 / 전체 과제분석의 단계 수) × 100(%)]이다.

7.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 측정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찰자간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즉, 연구자가 사업체(식당) 내에서 발달장애인들의 과제 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것뿐 아니라, 연구자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가정 내 중재 활동을 보조하였던 협력자 1인 역시 사업체(식당) 내에서 자료 측정의 작업에 참여하였다. 전체 실험 회기 중 30%를 임의적으로 표집(비디오 테이핑 수반)하여 연구자와 협력자 1인의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협력자 1인이 자료 측정의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종속변인(목표행동)의 과제분석과 자료 측정의 방법을 상호 견줄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차원에서 연구자와 협력자 1인의 자료 측정 결과가 95% 이상으로 일치할 때, 실제적인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을 위한 공식으로는 $[\text{일치한 수} \div (\text{일치한 수} + \text{불일치한 수}) \times 100(\%)]$ 이며, 대상별로 측정된 결과(평균/범위)는 대상 A(97.3/95~99), 대상 B(98.5/97~100), 대상C(97.6/96~99)이다. 이 결과는 각 실험 조건(기초선, 중재, 유지)을 모두 합하여 계산된 것임을 밝혀둔다.

8. 중재 충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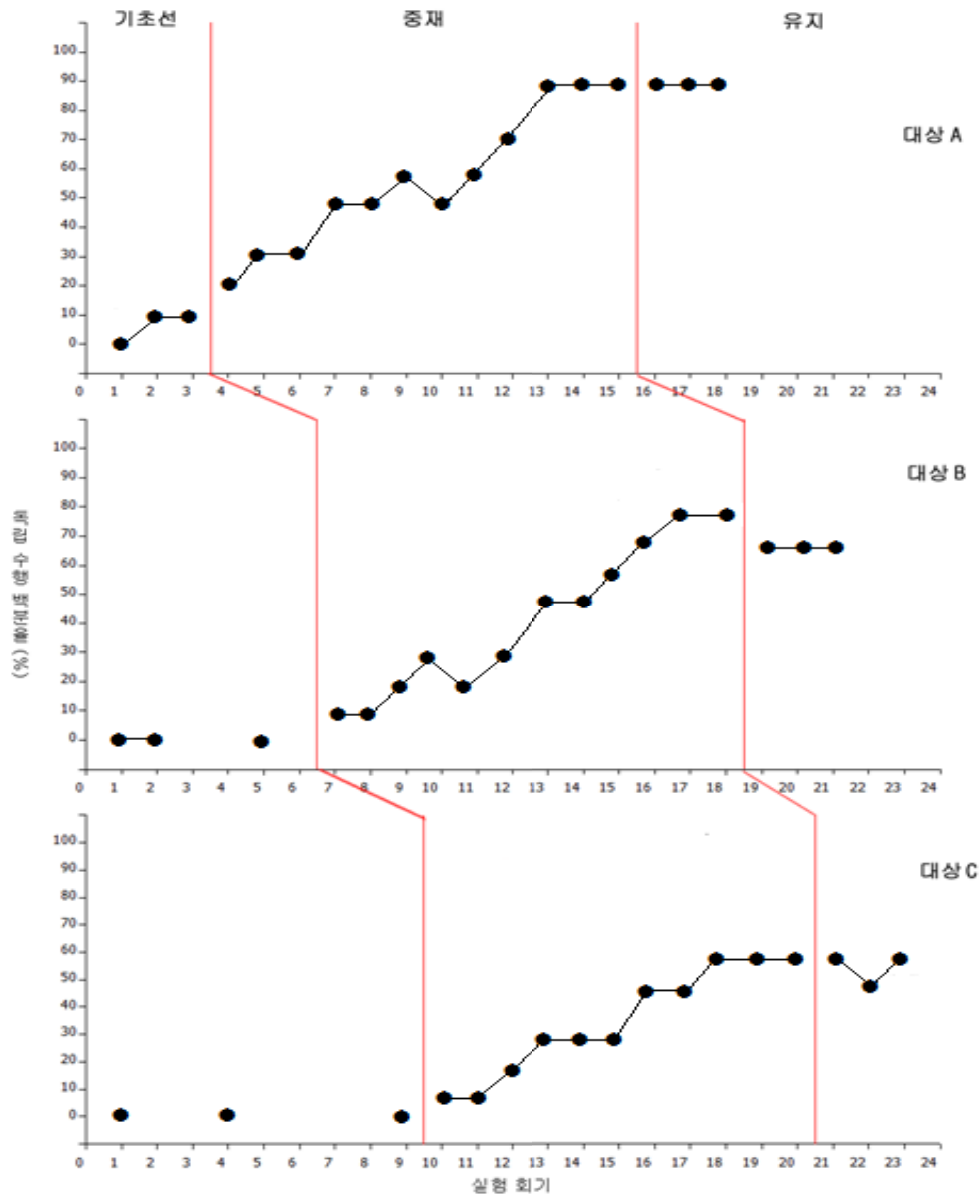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중재 활동이 얼마나 충실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중재 충실도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표 3>과 관련해, 크게 “① 중재 시 비디오 모델링과 행동시연을 적용하였는가?; ② 중재 시 사전 고안된 독립변의 적용을 위한 단계별 절차(1~6)가 반영되었는가?”로 구성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의 의미를 충실히 높이는 관점에서, “③ 사업체(식당) 내에서 연구자가 발달장애인들의 과제 수행에 대해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역시 한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된 중재 충실도는 임의적으로 표집한 30%의 실험 회기에서 모두 100%의 결과로 나타났다.

III. 연구 결과

1. 식당직무기술의 습득 효과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을 통해 식당직무기술의 수행에 대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발달장애인들은 기초선 기간

동안 대체로 저조한 수행 결과를 나타냈으나, 중재가 실시되고서부터 사업체의 직무 환경 및 직무 수행을 점차 구체적으로 인지해 나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재의 전체 회기 동안, 발달장애인들은 대체로 안정된 경향으로 정반응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식당직무기술의 독립 수행비율

기초선 단계에서, 발달장애인들은 0~10%의 수행비율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인들은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행동의 과제분석이 어떤 절차의 단계로 수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기초선 단계 이전에 제공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식당) 내의 조리실 및 홀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서 있거나 홀 내부의 창문이나 커튼 등에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을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일정 거리 간격을 두고 서 있는 연구자에게 대신 수행해 달라는 의존적인 행동도 보였다. 목표행동의 과제분석 1번 단계를 독립 수행한 발달장애인 A의 경우 다른 발달장애인들(B와 C)에 비해 사업체(식당) 내에서 주의분산 행동을 덜 보였으며, 과제의 수행 절차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과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수행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 A는 연구자에게 “선생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뭐하면 돼요?” 라고 질문하는 언어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달장애인들은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된 이후 10~20%의 범위로 목표행동의 독립 수행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행동의 수행과 관련해 주의집중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B와 C의 경우 과제분석의 1번 단계에 크게 주의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이들은 연구자에게 또는 혼잣말로 사업체(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이 테이블 번호가 기입된 메모지를 받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표현(부정확한 발음으로 “선생님, 메모지부터 받아야 하죠?”)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은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 사업체(식당)의 전반적인 환경과 직무 수행의 환경을 시정하는 경험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들이 사업체(식당)에 이전보다 친밀하게 방문할 뿐 아니라 목표행동의 과제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들은 비디오 모델링의 장면이 연출될 때 별다른 행동문제나 주의집중의 분산을 보이지 않았으며, A4용지와 사인펜을 가지고 사업체(식당)의 직무환경과 도구에 대해 그림그리기를 시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중재가 3회기 정도 실시된 이후 20~50%로 정반응의 수행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중재프로그램의 4~5번 절차(<표 3>)가 전개되면서, 목표행동의 과제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재프로그램의 4~5번 절차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에 이전에는 목표행동의 과제분석에 대한 각 단계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절차가 실행된 이후부터는 목표행동의 과제분석에 대한 각 단계들을 순서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우에서, 발달장애인 C는 중재프로그램의 4~5번 절차를 거듭 경험하면서, 비록 목표행동의 수행에 대해 오반응을 보였을 지라도 그 오반응의 형태가 과제분석의 각 단계별 수행 절차를 바꾸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 C는 과제분석의 2번과 3번 단계를 바꾸어 수행하거나, 8번과 9번을 바꾸어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은 비디오 모델링의 시청과 행동시연을 통합적으로 반복 학습함에 따라, 중재가 실시된 지 8회기가 지나고부터는 50~70%의 향상된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 중재 회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목표행동의 과제분석에 대한 각 단계별 수행 간격의 장면이 이전 회기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웠으며, 반응 정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발음 정확도 등의 측면에서 언어적 능력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과제분석의 8번과 10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가졌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들은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8번과 10번 단계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림으로써 손님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달장애인 A, B, C는 각각 중재의 마지막 회기에서 각각 90%, 80%, 6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발달장애인 A는 과제분석의 단계 10번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해(*실제 수행해야 할 내용과 방법은 알고 있으나, 발음 정확도의 능력에서 제한이 있었으므로, 손님이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90%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B는 과제분석의 단계 8번과 10번이 오반응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A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의 수행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발달장애인 C는 과제분석의 단계 7~10번이 오반응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A와 B에 비해 다소 낮은 정반응 수행비율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인 C는 과제분석의 7번 단계 자체를 수행할 순 있었으나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오반응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8~10번 단계는 부분적인 제한(예, 9번 단계 수행 시 반찬을 테이블의 중앙에 놓지 않음 등)으로 인해 오반응으로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식당직무기술의 수행을 향상된 결과로 습득하였다.

2. 식당직무기술의 유지 효과

발달장애인들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중재를 통해 나타난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발달장애인 A는 최종적인 중재 효과와 일치하는 90%의 정반응 수행비율을 3회기 연속하여 나타냈다. 발달장애인 B는 최종적인 중재 효과보다 10% 낮은 70%의 정반응 수행비율을 3회기 연속하여 나타냈다. 발달장애인 C는 최종적인 중재 효과인 60%의 결과와 일치하는 정반응 수행비율을 나타냈으나, 한 회기에 한해 10% 낮은 50%의 결과를 나타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비고용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과 직무적응능력(식당직무기술)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사례연구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사업체 참조 직업훈련을 통해 식당직무기술을 향상된 결과로 습득하였으며, 그 습득 결과와 유사하게 유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가 기능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고용의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가정에 머물면서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특수교육 및 재활복지의 연구 동향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몇몇 사례로 개발된 상황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사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김진호, 2006; 박희찬, 2006; 이숙향 외, 2012; Wehman et al., 2006).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고용과 비고용의 여부를 떠나 평생학습의 범주에서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개발된 중재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식당직무기술의 수행에 대해 보인 정반응 수행비율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가정과 사업체의 생태학적 상황은 충분히 상호 연계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조인수, 2010), 직업훈련의 교수 장면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봤을 때 가정이 사업체에 대한 기초 및 준비 학습 환경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식당직무기술을 완전한 독립 수행으로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을 다년(多年)간의 장기적 계획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보다 더욱 높이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향후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다룰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 예견되는 효과성을 안내하는 데에 주된 의의를 가지다고 볼 수 있다.

현행의 관련 선행연구(김수미, 2012; 박영근 외, 2013; 이승아, 1998; Brolin & Lloyd, 2004; Cronin et al., 2007)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직업훈련의 측면에서 가정은 발달장애인이 사업체에서 직장생활을 규칙적이고 바람직한 일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기술(예, 씻기, 옷 입기 등)을 습득해야 할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 대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재프로그램 및 효과성이 상호 통합적으로 견주어진다면 발달장애인들은 그러한 자기관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다양한 직종의 지역사회 사업체를 가정 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일반가정과 사업체의 상호 협력

모델이 실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훈련의 주된 중재요소로써 ‘비디오 모델링’과 ‘행동시연’을 포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학령기에서 경험한 교수기술을 통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고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곧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이 학령기와 연계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발전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김진호, 2003; 이은정, 2012; Kohler, 1994; Sitlington et al., 2010)와 상호 호응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선정 시 연구자의 비공식적 사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교수기술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런 분석 결과를 독립변인의 구성에 반영한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디오 모델링 등의 시청각 교육이 가정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주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그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들의 선호에 따라 행동시연을 중재프로그램의 요소로 반영한 것이지만, 행동시연은 비디오 모델링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협력적 기능을 하였다. 이를테면, 비디오 모델링 시청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구자의 반응축진이 수반되지만, 시각적 위주의 학습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신진숙, 하민희, 2010; 신현희 외 2014; Bouck, 2009; Dunn et al., 2003). 행동시연 역시 가상적인 간접 경험을 전제로 하는 교수기술에 해당하지만, 촉각적인 시연을 전제로 하면서 흥미 및 주의집중 위주의 역할놀이와도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디오 모델링과 통합될 경우 발달장애인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김영준, 2013; Mercer & Mercer, 2001).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이런 인지 효과를 실제로 입증하였다는 데에 역시 의의를 둘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사업체의 직무환경을 참조하면서 직무기술의 수행 맥락과 절차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연 비디오 모델링이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 비디오 모델링이 효과성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다양한 교수기술이 패키지의 형태로 역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후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학령기에서 경험한 여러 교수기술들을 성인기 직업훈련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이 구안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비디오 모델링(1차)과 그 밖의 교수기술(2차)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을 밝히는 학습스타일 관련 사정 절차 및 방법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못했으나, 만약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에 스마트폰 및 비디오 자기점검이나 정적 형식의 자기점검표가 비디오 모델링 및 행동시연에 통합적으로 구안되었다면,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들이 목표행동에 대해 나타난 정반응의 수행비율보다 더욱 높은 효과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주된 배경변인으로 비고용(unemployed)에 초점을 두어 따라, 비고용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절차로서 ‘사업체 참조’에서 ‘사업체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체 참조’의 직업훈련이 효과적일 때, ‘사업체 기반’의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ogan et al., 2002). 본 연구는 ‘사업체 참조’의 효과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체 기반’을 고려하진 않았으나, 만약 본 연구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설계를 ‘사업체 참조’와 ‘사업체 기반’을 상호 병행하는 체제로 구성했다면,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들이 목표행동의 습득 및 유지 효과는 현재보다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김남순, 2004; 김진호, 2014).

또한, 본 연구는 ‘사업체 기반’을 제외한 차원에서 ‘사업체 참조’의 맥락에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나, 이런 ‘사업체 참조’로 하여금 비고용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사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사업체 참조’에 기반한 직업훈련이 발달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일지라도, 그 효과성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장기간 유지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체 기반’의 직업훈련이 연계되어야 한다(박희찬, 2006; 이운우, 한경근, 2014; McDonnell et al., 1991; Wehman & Targett, 2004).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용한 ‘사업체 참조’의 직업훈련은 발달장애인들이 비고용에 따른 가정 내의 고립 및 의존 현상을 줄이고 직업생활을 탐색해 보는 데에서 주된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후속적으로, ‘사업체 참조’의 직업훈련이 ‘사업체 기반’의 직업훈련에게 가지는 이점과 기대효과를 고찰하는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사업체 참조’와 ‘사업체 기반’을 동시에 병행한 직업훈련의 사례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체 기반’의 직업훈련의 경우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역동적인 직무 환경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포함하기에, 발달장애인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 가지는 어려움과 제한점을 ‘사업체 참조’의 직업훈련에 비해 폭 넓게 사정하여 학습적 소재로써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부여한다(김형일, 2010; 정보연, 박승희, 2008; 조인수 외, 2013).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결과를 비추어 볼 경우, 본 연구는 ‘사업체 참조’의 맥락에서만 직업훈련을 적용함에 따라 중재의 장면에서 구성된 학습 소재가 공식적으로 계획된 ‘식당직무기술의 수행 내용 및 방법’에만 한정되었음을 단적으로 체고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들이 사업체(식당) 내에서 식당직무기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수적인 행동기능을 발견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노력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 참조’와 ‘사업체 기반’의 상호 병행체제는 발달장애인들이 개별화 교수를 위한 사정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세 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발달장애성인에게 보편화 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재프로그램의 구성 시 연구 대상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감안하여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및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다.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의사소통 도구 및 자료를 사용하면서 목표 행동을 수행했다라면, 보다 높은 독립 수행비율의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 설계의 조건으로 일반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환경으로 활용된 사업체(식당)가 중재 환경이 아닌 평가 환경으로 구성되었기에, 별도로 일반화의 환경을 구성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추가적으로 제한점의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밝힐 사안은,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시 실시하였던 발달장애인들의 선호 교수기술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이 학습 스타일 사정과 관련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사정의 차원에서 연구자가 몇몇 예시적인 상황과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용한 후, 연구자가 교육적 견지에서 선호 교수기술을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를 더욱 타당하게 지지해 줄 근거와 절차 및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병호 (2004).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재활복지연구**, 2, 163-191.
- 김경열 (2012). 발달장애 아동의 학령기 이후 교육참여에 관한 학부모 심층면담. **발달장애연구**, 16(2), 1-21.
- 김남순 (2004). 정인지체아동의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방안. **정인지체연구**, 6, 175-196.
- 김남진, 박재국 (2007).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본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1(4), 215-234.
- 김수미 (2012). 자기관리전략을 이용한 사회적 기술 중재가 공공 도서관의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준 (2013). 다중교수접근 직업훈련이 경도지적장애학생의 직무 및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김영준, 강경숙 (2013). 전공과를 졸업한 비고용 지적장애인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1), 71-101.
- 김진호 (2003).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현행 성인직업재활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및 협력방안. **직업재활연구**, 13(2), 1-30.
- 김진호 (2006). 정인지체학생의 지역사회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1(1), 39-57.

- 김진호 (2014). 지역사회중심 훈련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들의 도서관 사서보조원 직무기술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6(1), 61-84.
- 김용욱, 우정환, 박종화 (201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237-256.
- 김형일 (2010). 사회적 정보처리 훈련이 학령기 이후 지적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2(1), 31-49.
- 박영근, 조인수, Hosp, J. L. (2013). 지적장애학생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주요기술 관련 특수교사 인식. **재활복지**, 17(4), 245-265.
- 박희찬 (2006). 장애학생의 직업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간의 프로그램 연계. **특수아동교육연구**, 8(3), 103-127.
-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경기: 양서원.
- 신진숙, 하민희 (2010).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가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지역사회 활용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309-328.
- 신현희, 최연우, 김수진, 김경미 (2014).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디오 모델링 훈련이 식사 준비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2), 375-385.
-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승아 (1998). 자기관리전략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지체인의 독립적인 작업과제 수행 행동 및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자폐 범주성 장애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중재 요소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6(4), 167-193.
- 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교육 및 임상 현장적용을 위한 단일대상연구**. 서울: 학지사.
- 이은정 (2012). 정서·행동장애아동과 자폐성장장애아동의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윤우 (2013). 고용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초직업능력을 반영한 지적장애학생의 직업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안.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윤우, 한경근 (2014). 지적장애 학생의 기초직업능력 구성요인 및 하위내용 탐색. **장애와 고용**, 24(2), 97-136.
- 임혜경, 박재국, 김은라 (2014a). 장애학생의 여가활동참여 실태 및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339-363.
- 임혜경, 박재국, 김은라 (2014b). 장애성인의 사회참여 수준과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519-543.
- 오길승 (2009). 지적 및 자폐성장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농업분야의 가능성 탐색. **특수교육연구**, 16(2), 283-308.
- 정보연, 박승희 (2008). 지역사회 직업훈련 환경에서 상황중심 안전기술 교수가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위험대처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직업재활연구**, 18(2), 181-211.
- 조인수 (2010). **개별화 전환교육계획을 위한 전환사정**.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독특한 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생활자립훈련프로그램**.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Bouck, E. C. (2009). Functional curriculum models for secondary students with mild mental impair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4*(4), 435–443.
- Cronin, M. E., Patton, J. R., & Wood, S. J. (2007). *Life skills instruction: A practical guide for integrating real-life content into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or who are placed at risk* (2nd ed.). Austin, TX: PRO-ED.
- Dunn, R., Dunn, K., & Price, G. E. (2003). *Learning styles inventory*. Lawrence, KS: Price Systems, Inc.
- Hanley-Maxwell, C., & Collet-Klingenberg, L. (2004). Preparing students for employment. In P. Wehman and J. Kregel (Eds.), *Func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middle, and secondary ag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pp. 205–243). Austin, TX: Pro-Ed.
- Kohler, P. D. (1994). On-the-job training: A curricular approach to employment.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1), 29–40.
- McDonnell, J., Wilcox, B., & Hardman, M. (1991). *Secondary program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oston: Allyn and Bacon.
- Mercer, C. D., & Mercer, A. R. (2001). Assessing students for instruction. In C. D. Mercer & A. R. Mercer (Eds.), *Teaching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6th ed., pp. 97–144).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Miller, R. J., Lombard, R. C., & Corbey, S. A. (2007). *Transition assessment: Planning transition and IEP development for youth with mild to moderate disabilities*. Boston: Allyn and Bacon.
- Rogan, P., Novak, J., Mank, D., & Martin, R. (2002). From values to practice: State level implementation of supported employ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7*(1), 47–57.
- Sheets, D., & Gold, E. (2003). *My future my plan: A transition planning resource for life after high school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ashington, DC: State of the Art, Inc.
- Sitlington, P. L., Neubert, D. A., & Clark, G. M. (2010).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Walker, P., & Rogan, P. (2007). *Make the day matter: Promoting typical lifestyles for adult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Baltimore: Paul Brookes Publishing Co.
- Wehman, P., & Targett, P. S. (2004). Principles of curriculum design: Road to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In P. Wehman and J. Kregel (Eds.), *Func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middle, and secondary ag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2nd ed.) (pp. 1–36). Austin, TX: Pro-Ed.
- Wehman, P., Brooke, V., & West, M. D. (2006). Vocational placement and careers. In P. Wehman (Ed.), *Life beyond the classroom: Transition Strategie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4th ed.; pp. 309–353). Baltimore: Paul H. Brookes.

The Effects of the Community Workplace Referenced Vocational Training on the Task Adaptation Ability for Unemployed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Young Jun

Pusan National University

Do, Myung Ae

Keimyung Colleg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ty workplace referenced vocational training on the acquisition of task adaptation ability of a unemployed individual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 were three unemployed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fore the request on the necessity for vocational living acquisition of adulthood. The target behavior which was the acquisition of task adaptation ability consisted of one sub-skill: restaurant task skills(side dishes on dining table setting, hall serving). The multiple prob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The community workplace referenced vocational training used instructional techniques such as video modeling, role playing. Along with the mutual cooperation of instructional techniques maintained the pattern of the package form.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all thre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effectively acquired by the participant. Also, the newly acquired skill were maintained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intervention.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workplace referenced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community workplace referenced vocational training, unemployed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ask adaptation ability

논문 접수: 2014. 07. 31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0